

재즈를 듣다 19

재즈와 땀고

글. 이기현 재즈 칼럼니스트



재즈는 아프리카에서 붙잡혀온 노예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먹고 자란 20세기 위대한 예술 장르 중 하나다. 노예 주인들이 알고 있던 유럽 고전음악과 유럽인들 관점에서 신 대륙이었던 그곳의 토착 음악과 아프리카 음악 전통을 기억하고 있는 노예들의 음악이 한 그릇 속에서 오랜 세월 비벼진 결과로 나온 새롭고 혁신적인 장르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유럽 제국주의가 인류를 향해 저지른 갖가지 추악한 만행들과 마주하게 된다. 과연 어디까지 인간 스스로 잔혹한 존재로 만들 수 있는지 아무리 파도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다. 이 비극적인 역사가 없었다면 재즈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럼 노예무역 덕분에 위대한 예술이 태어났으니 이것도 나름 의미가 있었다고 해야 할까? 예를 들어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의미로 쓰는 고진감래(苦盡甘來)란 말을 재즈에 붙여도 되는 것일까? 난 도저히 동조할 수 없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노예무역 같은 야만적 행위는 일절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고 더불어 재즈도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배경이나 내막은 잘 모른 채 주변의 음악을 즐길 뿐이다.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 왜 재즈의 뿌리가 우울한 음악, 즉 블루스(blues)인지를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여담으로 아프리카 대륙 서북쪽에 카보베르데(Cabo Verde)라는 작은 섬나라가 있다. 원래는 무인도였으나 노예무역이 흥하자 포르투갈이 전초기지로 이용하면서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 모르나(Morna)는 이곳의 대표 음악 장르다. 영어의 '애도하다(= mourn)'와 어원이 같다고 한다. 노예가 있던 곳엔 늘 우울과 슬픔이 깔린 음악이 탄생하는 듯하다.





칸돔베 : 1870년 우루과이, 현재 / wikipedia, www.descubrimontevideo.uy



아메리카 대륙은 크게 북미와 남미로 나뉘고, 주변에 수많은 섬이 있다. 모든 곳에 흑인 노예가 골고루 분포했다. 당연히 흑인이 있는 곳에선 새로운 음악이 탄생했을 것이다. 그중엔 블루스, 재즈처럼 만개한 것도 있고, 특정 지역에만 머물다 소멸한 것도 있을 것이다. 또 “굴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라는 말처럼 다른 토양에서 재즈와는 다른 모습으로 성장한 장르도 있지 않을까? 실제로 그런 것이 있다.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탱고(Tango)가 그중 하나다. 재즈와 탱고는 전혀 다른 음악이다. 그런데 역사를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상당한 공통점이 눈에 띈다.

“콩고스퀘어 vs 칸돔베”

노예무역을 통해 아메리카 대륙으로 끌려간 흑인들은 주로 대서양 너머 가장 가까운 곳, 서아프리카 지역 사람들이었다. 노예 상인은 누가 어느 부족민인지 관심을 둘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노예주는 조금 달랐다. 같은 부족민끼리 모여 있으면 힘을 합해 반란을 일으킬 위험도 있었고, 기독교인이었던 주인들은 그들 관점에서 지독히 이교도적인 아프리카 전통 의식이 계승되길 원치 않았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부족들끼리 뒤섞어 놓는 방법을 썼다. 그런데도 흑인 고유의 관습과 전통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건 불가능했다. 적어도 19세기 말까지 재즈의 발상지였던 뉴올리언즈의 콩고 스퀘어에서는 흑인 노예들만의 집회가 정기적으로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칸돔베(Candombe)는 주로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성행했던 가장행렬 축제에 사용된 음악을 가리킨다. 다른 흑인 음악과 마찬가지로 흑인 노예들이 숲에서 주술적인 의식을 행하였던 전통이 토대가 되었다. 이 왁자지껄한 분위기로부터 의미가 확대된 듯, 스페인어 사전에서 ‘Candombe’는 혼란, 무질서란 뜻을 아울러 갖고 있다고 나온다. 칸돔베는 오늘날에도 행해지고 있어 인터넷을 통해 쉽게 동영상을 구해서 볼 수 있다. 유명한 탱고곡인 ‘라 쿼빠르씨따(La Cumparsita)’는 ‘가장행렬’로 번역된다. 이 역시 칸돔베를 묘사한 음악이다.

“렉타임 vs 아바네리”

쿠바 음악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1999년에 개봉된 다큐멘터리 영화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Buena Vista Social Club)’은 잊지 못할 명작이다. 촬영 당시 이미 연로하셔서 지금은 많은

분이 돌아가셨지만 오마라 포르투온도(Omara Portuondo)는 여전히 활동 중이다. 이분이 노래한 대표곡 중 하나인 ‘봄의 작은 나비(= Mariposita de Primavera)’는 아바네라(Habanera)란 장르에 속한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19세기경 쿠바 수도인 아바나에서 유행했던 음악 형식으로 느린 2/4 박자 리듬, 음표에 부점(附點)을 더하여 독특한 느낌을 낸다. 쿠바의 불특정 선원들에 의해 땅고의 발상지인 보카항으로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유명한 아바네라는 비제(Bizet)가 쓴 오페라 카르멘(Carmen)에 나오는 여주인공이 부르는 아리아로 곡명 자체가 ‘아바네라(Habanera)’다. 이 곡은 비제의 순수 창작이 아니고 스페인 작곡가 세바스티안 이라디에르(Sebastián Yradier)가 쓴 ‘엘 아레글리토(El arreglito)’에서 선율을 가져온 것이다. 재즈가 탄생하기 전 랙타임(Ragtime)이란 피아노 음악이 있었고, 이것이 스트라이드 스타일이라는 초기 재즈의 피아노 주법으로 발전했듯, 땅고에선 아바네라가 랙타임에 대응하는 리듬이라고 말할 수 있다.

“블루스 vs 빠야다”

아르헨티나에는 ‘팜파스’라는 드넓은 목초지가 펼쳐져 있다. 이곳에서 가축을 기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 gaucho(카우보이)들이 부르던 노래에서 아메리카 흑인 노예의 애환을 담은 블루스와 비슷한 궤적을 발견할 수 있다. 당시 그곳은 일종의 무법 지대와 같아서, 도시에서 도망 나온 사람, 노예, 탈영병들도 gaucho가 되었다. 드넓은 지대에서 북아메리카 흑인들은 농업을 하였던 반면 gaucho는 목축업을 하였고, 흑인들이 노예 또는 하층민이었듯 gaucho의 사회적 지위 또한 그러하였다. 야외에서 다양한 악기를 동원하긴 어려웠을 것이므로 gaucho들은 기타와 같은 휴대하기 편한 악기 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소박하고 서정적인 노래인 빠야다(Payada)를 남겼다.



팜파스 / wikipedia



가우초(1868년) / wikipedia



소설 '엘 콤파드리토' / www.amazon.com, www.tanguito.co.uk



“크리올 vs 콤파드리토”

1863년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하였고, 1865년 남북전쟁이 끝났을 때 흑백 혼혈인이었던 크리올(Creole)은 백인이 아닌 흑인으로 간주돼 인종 차별을 받았다. 순식간에 경제 기반을 잃고 먹고 살길이 막막해진 이들은 체면 불구하고 과거에 자신들이 업신여겼던 흑인 사회로 편입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일부는 홍등가 주변 싸구려 술집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생계를 꾸려나갔다. 이로 인해 악보를 볼 줄 모를 뿐 아니라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악기를 연주하였던 흑인들에게 크리올의 지식이 전수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크리올을 스페인말로는 크리오요(Criollo)라고 한다. 다양한 계층이 뒤섞여 있던 gaucho 무리 중에 크리오요도 있었다. 이 스페인 혼혈 gaucho 후에 중 생활 기반을 도시로 옮긴 무리를 콤파드레(Compadre)라고 불렀다. 이들의 마초적인 이미지를 흉내낸 동네 건달, 바람둥이를 콤파드리토(Compadrito)라 한다. 초기 땅고 노랫말은 바로 이 콤파드리토의 이야기들이다.

“스토리빌 vs 보카”

초기 재즈의 발상지는 뉴올리언즈다. 좀 더 범위를 좁히면 38번 구역, ‘스토리빌(Storyville)’이다. 당시 도시 곳곳에 만연한 매춘을 지정된 장소에서만 허용하고 규제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조성된 홍등가였다. 땅고의 발상지는 부에노스아이레스다. 좀 더 범위를 좁히면 ‘라 보카(La Boca)’라는 이름의 작은 항구 마을, 그 중 까미니토(Caminito)라 불렸던 작은 집이 모여 있는 골목길이다. 이 지역 역시 뱃사람들을 상대하는 싸구려 술집들과 창녀들이 있었던 곳이었지만 화려했던 스토리빌과 달리 다소 어두운 분위기가 많이 나는 곳이었다. 초기 재즈와 마찬가지로 초기 땅고 또한 이 작은 지역 내에서만 알려진 것이었다.



라 보카의 까미니토 / wikipedia, www.baenegocios.com



오르케스트라 띠삐까와 탱고 오르케스트라 / youtube, www.tangology101.com

“빅밴드 vs 탱고 오르케스트라”

아메리카 대륙 북쪽과 남쪽에서 각각 발전한 재즈와 탱고는 1930년대를 지나며 대중적으로 최고 인기를 구가하게 된다. 이렇게 시기가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것도 참 묘한 일일뿐더러, 둘 다 댄스 음악으로서 전성기를 보냈다는 것 또한 같다. 이 흥겹기 짝이 없는 음악이 유행하던 시기에 세계 경제는 1929년 대공황 이후 극도로 암울해진 상태였음이 참 묘한 대조를 이룬다. 탱고 또한 (탱고 밴드의 원형인) 오르케스트라 띠삐까에 기반을 두고 점점 더 큰 규모의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재즈보다 약간 늦은 1930년대 말부터 약 20여년간 절정을 맞이한다.

“비밥 vs 누에보”

40년대 중반 이후 재즈 연주자들은 판에 박힌 화음 진행을 넘어선 좀 더 자유롭고 혁신적인 실험을 했다. 그 결과로 밥(Bop)이 탄생했다. 비슷한 시기 탱고는 군부의 억압을 받아 거의 괴멸 지경에 이르러 혁신을 하지 못했다. 재즈가 본격적인 예술 장르로서 발전을 거듭하는 동안, 아스토르 피아졸라(Astor Piazzolla)가 등장하기 전

까지 탱고는 사실상 암흑기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피아졸라의 탱고를 기존 음악과 구별하여 ‘누에보 탱고(Nuevo Tango)’라 부르는 주된 이유는 상당수가 춤추기에 적당치 않기 때문이고, 바로 이 점으로 인해 피아졸라 음악은 탱고가 아니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이 현상을 재즈의 역사와 비교해 보면 춤곡에서 감상용 음악으로 변모하는 과정이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재즈에 비해 십수 년쯤 늦게 시작된 것에 불과할 뿐, 언제 누구로부터든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난 것이었다고 본다.

“길 에반스 아파트 vs 아자꾸초 거리의 엘불린”

‘아자꾸초 거리의 엘 불린(= El bulín de la calle Ayacucho)’이란 탱고 음악이 있다. 작곡자 호세의 친구인 네그로 셀레(Negro Cele)의 아파트로, 아자꾸초 거리 1443번지에 있었다고 한다. 이곳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탱고 음악가와 가수가 한데 모여 음식을 먹고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일종의 찰롱 역할을 겸한 듯하다. 재즈 역사에서는 편곡자 길 에반스의 아파트가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한 것으로 나온다. 🎷